

인간은 왜 갑질과 차별을 멈추지 못할까

인간의 악에게 묻는다

김성규 지음

책 부제가 눈길을 끈다. '누구나 조금씩은 비정상'이라는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사이코패스, 이중인격, 분노 조절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시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제와 아울러 개인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방증이다.

동국대 문화학술원 김성규 교수의 '인간의 악에게 묻는다'는 흥미로운 책이다. 인간은 왜 악행을 저지르는지, 인간은 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좀 더 선에 가까운 길을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호승 시인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필독서!"라고 평했으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적응을 한 단계 더 올려줄 것"이라고 찬찬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악'을 '선'의 반대말과는 다르게 본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 심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도 나쁜 것', '악'에 해당한다고 본다.

책은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됐다. '인간은 정말로 공정과 평등을 지향할까', '왜 갑질과 차별을 멈추지 못할까', '사이코패스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무엇을 흠쳐보는가', '사랑의 때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강타한 K드라마였



'오징어 게임'은 상금을 타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위에 서려는 인간의 본성을 그린 드라마다.

다. "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지"라는 대사는 강렬했다. 그러나 과연 평등한지 의문이다. 참가자들은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과 우위에서 서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인간은 '선한 본성'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이익을 취하려는 '악한 본성'을 타고난 것은 아닌지 모른다.

사람들이 갑질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공감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정치 철학자 아렌트는 "타인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말했다.

오늘날은 포스트 빅브라더의 시대다. 스마트폰과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는 은밀하게 판을 치고 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지독한 흠쳐보기'는 대상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파괴한다. 정항균은 '메두사의 저주: 시각의 문화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태도는 몰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사냥은 뚜렷한 목적의식에 기반을 둔 의도적 행위이며 사냥감의 살해라는 파괴적인 행위로 끝이 난다"고 강조했다.

책에서 수궁이 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음의 문장이다.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인간은 악하면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성격과 마음으로 구성되는 존재가 아니며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개성과 마음을 가졌기에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책이라는 신화> 1만7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인간의 뇌는 인지조절 기능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적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킨다. 인지조절은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데이비드 바드르는 인지조절 과정이 어떻게 우리 의식 작용의 거의 모든 면에 관여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해나무> 1만9800원

▲눈부신 디테일의 유령론=지난 2012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안민희 시인의 두번째 시집. 안 시인은 '유령'을 통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감각들을 표현했다. 시들은 종이를 접었을 때 모양을 알 수 있는 도면처럼, 사방으로 펼쳐질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처럼 펼쳐지며 나아간다. <문학과지성사> 9000원

▲암을 이기는 최고의 식사법=암 환자의 입맛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요리 만드는 법을 영양학 박사과 임상영양사들이 소개한다. 항암치료를 받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별로 필요한 식단과 치료 후에 재발을 방지할 돕는 다양한 메뉴와 조리법을 담았다. 식사를 준비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구하기 쉬운 식재료로 메뉴를 개발했다. <리스크> 1만8000원



▲좋은 걸 보면 네 생각이 나=매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삶과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글을 써온 작가 청민의 에세이. 유년 시절에서부터 이십 대까지, 낯선 여행지들을 여행하며 발견한 일상의 가치를 담았다. 강릉, 잉글랜드, 드레스덴 등 여행지에서 찾은 깨달음들이 나에게서 우리로, 우리에게서 삶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상상출판> 1만4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로 재구성한 그리스 로마사

가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

개릿 라이언 지음 최현영 옮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여러가지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일 듯하다. 또 '플루타르코영웅전' 등을 통해 만난다

양한 영웅과 지도자의 이야기도 흥미를 자아낸다. 신화 속 이야기나 영웅적 인물의 특별한 사건으로 채워진 역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속살을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미시간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개릿 라이언 교수의 '가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신화가 아닌 보통 사람의 삶으로 본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 '보통 사람들'의 삶과 사유를 통해 그리스와 로마를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디트로이트 미술관에서 고대 그리스-로마 전



시실 투어를 마쳤을 때 한 학생으로부터 "그리스 조각상들은 왜 이리 나체가 많아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순간, 저자는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36가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이 학생을 포함한 대중들이 무심코 던지는 세속적이고 유쾌한, 하지만 날카로운 질문 속에 신화나 잘 꾸며진 이야기, 또는 방대하게 쓰인 연구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로마 고대사의 진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직접 탐사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이 책은 무심코 지나쳤던 유물 속에 담긴 진실, 여러 영화 속에서 왜곡돼 왔던 그리스 로마인들의 일상과 역사를 생생히 드러낸다. 또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했고 현장감 넘치는 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흥미를 돋운다.

질문은 콜로세움 무대에 섰던 사자들은 어떻게 포획했는지, 검투사들은 정말 영화 속 모습처럼 살았는지,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서로마제국의 멸망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등 독자들

이 궁금해할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기록하고 약속을 했을까, 고대 진찰실 풍경은 어땠을까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문명의 뿌리가 담긴 사회의 단면들'에서는 그들의 평균 수명과 키,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 살펴보고 '떠려야 될 수 없는 신화와 종교 이야기'에서는 그리스 로마인들이 신화를 정말 믿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 '울림퍽과 콜로세움의 현장 속으로'에서는 오늘날처럼 프로 운동선수가 있었는지,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콜로세움 건설에 담긴 경이로운 이야기들은 사실인지 묻는다. 그밖에 '전쟁과 정치의 세계'에서는 로마는 왜 게르마니아를 정복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록으로 실린 '고대 시대에 대한 간단한 문답 시간'은 책을 읽기 전 준비단계에서 읽으면 좋을 그리스 로마 역사에 관한 속성 강좌다. <다산초당> 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악몽을 수집하는 아이=임수현 시인이 내놓은 청소년시집으로 60편의 시가 실렸다. 악몽을 수집하는 아이 김민서의 눈으로 본 시 48편, 우리 고전에서 영감을 받아 쓴 12편의 시가 별책부록이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악몽'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평범한 민서의 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내면에 잠재된 불안한 심리와 불안정한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창비교육> 8500원

▲사과 먹는 법=전병호 시인이 사과를 먹는 방법을 통통 튀는 입말과 상상 가득한 그림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표현했다. 책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등장해 큰 사과나 작은 사과, 잘 익은 사과 또는 덜

익은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와작와작 깨물어 먹기도 하고, 조그맣게 떼어 꼭꼭 씹어 먹기도 하는 등 가지각색 방법으로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봄봄출판사> 1만3000원

▲다시 그러도 관찰아=줄넘기, 팽파떡기, 달리기... 공터에서 무리지어 노는 친구들을 바라만 보는 여자아이가 있다. 그러다 발견한 땅에 그려진 기다란 선. 선을 따라가 보니 토래의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된다. 김주경 작가는 선을 따라 걸으며 친구를 만나는 아이를 통해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울러 모두가 자신만의 선에서 멋진 경험을 채우기를 응원한다. <씨드북> 1만2000원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씨가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